



즉시 배포용: 2018 년 5 월 3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뉴욕 선거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지역별 모의 훈련에 대해 발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뉴욕주 정보 본부(State Intelligence Center) 등과 협력하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및 미국 국토 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후원하는 사상 최초의 모의 훈련

사이버 보안 준비 및 선거 시스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실시되는 일련의 지역별 모의 훈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협력하여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가 사이버 공격에 맞서 뉴욕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련의 모의 훈련을 주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뉴욕주 정보 본부(State Intelligence Center) 등과 협력하는 모의 훈련은 (1) 유권자의 신뢰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이버 사고 계획, 준비, 대응 분야의 개선 영역을 파악하고, (2) 투표 운영에 개입하며, (3) 선거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안에 취약한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친 엄청난 결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뉴욕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공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 주민은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가져야 하며, 이 모의 훈련은 유권자의 신뢰와 우리 선거 인프라의 무결성을 복원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와 새로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사이버 사건 대응팀(DHSES Cyber Incident Response Team)의 주도 하에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주, 현지, 연방 이해 관계자들과의 6 차례의 지역별 모의 훈련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고, 사이버 공격에

맞서 선거 절차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의 훈련의 일자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31일: Albany County - Times Union Center
- 6월 6일: Monroe County - Board of Elections
- 6월 7일: Onondaga County - Syracuse University, Dineen Hall
- 6월 11일: Nassau County - Morrelly Homeland Security Center
- 6월 12일: Orange County - County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
- 6월 18일: Broome County - Floyd L. Maines Veterans Memorial Arena

지역별 모의 훈련은 뉴욕의 카운티 선거 관할 지역 모두에서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의 훈련은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과 우리의 선거 인프라가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복합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1) 발생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조작, (2) 유권자 등록 정보 시스템 및 절차의 중단, (3) 개표기, (4) 선거관리위원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의 훈련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선거 센터(Secure Elections Center)를 통해 뉴욕의 선거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8년 5월 3일에 승인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계획의 일환입니다. **ARMOR** 라는 별명이 붙은 이 계획의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및 카운티 선거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Assess),
- 취약점을 보완하며(Remediate),
- 진행 중인 활동(Operations)을 모니터링하고(Monitor),
-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합니다(Respond).

뉴욕주 상원 선거위원회(Senate Elections Committee)의 위원장인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의 훈련으로 뉴욕주 유권자를 보호하고 뉴욕주가 우리의 투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보장하는 주정부 공약을 실천합니다. 주정부, 지방 정부, 연방 정부 파트너들은 뉴욕 선거 인프라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선거법위원회(Assembly Election Law Committee)의 위원장인 **Charles Lavi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이 뉴욕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저희는 뉴욕의 사이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투표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의 **Todd D. Valentine** 공동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 시스템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한 믿을만한 보고서가 제출된 적은 없었지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여 무사안일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16년부터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의 훈련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의 Robert A. Brehm 공동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투표 시스템 보안 프로토콜의 일부에서 사이버 위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주의 선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직책에서 이미 형성된 지방 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회를 환영합니다.”

뉴욕주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New York State Cyber Security Advisory Board)의 상임 이사인 Peter Bloniarz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모든 단계의 정부 간 팀워크와 파트너십을 수용하는 “모두 도와야 하는” 활동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주지사의 행정부는 오늘날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뉴욕주 및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State and County Boards of Elections)와 연방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이 모의 훈련에서 쌓은 경험은 뉴욕이 선거 인프라 보호에 계속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투표소에 들어설 때, 자신의 투표가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모든 투표와 유권자를 위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가 유지되며 투표 시스템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투표는 가장 소중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뉴욕주 경찰과 뉴욕주 내의 관계 기관들은 이 특별한 권리의 신성함과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짐에 따라 협업을 통해 우리는 선거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모의 훈련에 임함으로써, 이 모의 훈련은 그러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더욱 잘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이버 시스템에서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예방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가 보호 및 프로그램부(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의 Bob Kolasky 차관보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의 훈련으로 선거 인프라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협력 수준이 드러납니다. 뉴욕의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선거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훈련, 정보

공유, 기술 사이버 분석 및 전문 지식 제공을 통해 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에서 향후 선거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DHS) 국가 보호 및 프로그램부(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의 Matthew Masterson 선임 사이버보안 자문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선거 절차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와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의 훈련은 사이버 및 기타 위협에 맞서 진행하는 선거 보호 절차에 대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 공약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저희는 선거 절차를 보호하고 뉴욕 주민 투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의 업무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의 훈련은 Cuomo 주지사의 2018 년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발표한 계획과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선거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가 공유하는 네 가지 면의 다각적인 접근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거 지원 센터(Election Support Center) 설립,
- 선거 사이버 보안 지원 툴킷(Elections Cyber Security Support Toolkit) 개발,
-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에 사이버 위협 취약성 평가 및 지원 제공,
- 데이터 보안 침해를 주정부 당국에 보고하도록 카운티에 요구

모의 훈련이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각 행사가 있기 전에 제한된 언론 보도가 나올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얻으려면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공공 정보 사무국(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 Public Information Office)의 John Conklin 또는 Cheryl Couser 에게 [\(518\) 474-1953](tel:5184741953) 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INFO@elections.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Kristin Devoe 에게 Kristin.Devoe@dhses.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